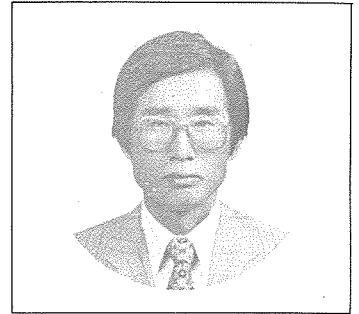


科學技術 政策研究 · 評價센터

國家研究 · 開發활동을 체계적으로 調査分析



李鍾郁 소장

韓國科學技術院(KAIST) 科學技術政策研究·評價센터(CSTP: 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가 1987년 1월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KAIST가 기존의 정책연구·평가 관련분야 연구조직을 확대·개편하여 國家의 연구·개발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政策代案을 연구하는 專門인 “科學技術政策研究 頭腦集團”으로서의 역할과 국내 관련분야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科學技術정책과제 및 代案연구

이 센터의 설립목적을 보면, 과학 기술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집행을 뒷받침하는 政策課題 및 政策代案연구를 비롯 國家的 차원에서 研究開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의 체계적 분석과 종합적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주요 연구활동분야는 국내외의 ▲ 과학기술 발전동향분석 ▲ 國策研究開發사업의 평가 ▲ 科學技術政策연구 등이며 ▲ 이와 관련된 國內外 學術·出版活動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의 기본방향은 연구의 學際的(interdisciplinary) 특성을 감안하여 多部門 綜合研究가 가능하도록 매트릭스조직(matrixsystem)으로 운영하고 연구원 구성도 自然科學과 社會科學 專攻人力的 양적·

질적인 균형을 유지한다는데 두고 있다.

또한 새로운 學問分野로 부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분야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國內 各界 전문가와 상호 보완적인 공동연구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구결과와 政策的 有用性を 높이기 위하여 政府關聯部處, 出捐研究所, 企業 등과도 긴밀한 연계 관계를 유지·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학기술행정의 주무 부처인 科學技術處와는 가능한 政策代案의 다각적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과학기술정책의 합리성과 合目的性を 추구해 나가는 한편, 과학기술처 산하 出捐研究機關은 물론 한국 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관련된 정책전문연구기관과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本質과 아울러 이의 경제사회적 연관 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외국의 우수한 專門研究機關 및 國際機構와도 공동세미나, 연구원의 상호교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의 흡수와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센터의 운영과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주로 政府財政에 의해서 조달된다고 하는데, 이외에도 產業界 및 公共機關 그리고 外國機關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受託研究도 수행할 준비태세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센터의 運營全般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學界, 產業界, 政府人士 등으로 구성되는 10명 내외의 研究諮問委員會와 각종 기술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10명 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技術諮問團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特定研究사업성과분석등 7개과제에 중점

금년은 설립 첫해로서 주요 研究課題를 보면, ① 特定研究事業의 성과분석 ② 科學技術投資의 흐름분석과 전망 ③ 生産自動化 기술의 발전 및 확산과 전망 ④ 先進國과의 協力研究 활성화방안(스웨덴, 호주, 일본) ⑤ 分野別 技術白書의 발간을 위한 조사연구 ⑥ 尖端技術의 발전전망과 기술개발에 관한 深層分析 ⑦ 戰略的 産業製品의 기술수준 측정과 비교우위 향상 등 7개 과제를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先進國에서도 이 분야연구가 활발

최근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향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國家들은 경제·사회·정치면에서 그들의 국가발전 및 국제적인 지위를 고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동향이다.

이에 따라 선진제국에서는 과학기술 발전 현황 및 관련정책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학문분야로 태동하고 있는 경향이다.

英國의 경우를 보면, 1966년 Sussex대학에 부설 연구소로 SPRU(Science Policy Research Unit)가 설립됐으며, ① 先進國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연구 ② 開途國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연구 ③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④ 에너지經濟學 및 政策

에 관한 연구 ⑤ 軍事技術 및 戰略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1966년 Lund대학 부설 연구소로 RPI(Policy Institute)가 설립되었으며, ① 技術과 國家發展(제3세계의 기술정책에 관한 연구) ② 스웨덴 産業의 미래(연구개발정책이 스웨덴 産業에 미치는 영향 연구) ③ 技術과 文化(아시아와 서부유럽의 기술발전 비교연구)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中共의 경우는 1982년 10월 國務院 科學技術委員會(SSTC)가 설립되었으며, ① 과학기술·경제분야의 정책연구과제를 조직·관리 ② 국가 과학기술정책 지침을 기안하여 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 ③ 과학기술 시스템 엔지니어링분야, 정책결정을 위한 計量分析 技法과 理論분야, 과학기술의 관리와 의사결정과정분야 등을 연구 ④ 外國機關과의 學術 신포지움개최 등 국제협력 대외창구 역할 ⑤ 科學技術政策 분야에 대한 훈련과 情報의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는 1983년 초 보스톤 대학의 CTP(Center for Technology and Policy)가 설립되었으며, ① 各國의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구·비교 ② 기술의 사회에 대한 영향평가(기술예측, 과학사회학) ③ 기술혁신과 경제발전과의 관계 ④ 기술변화와 정부규제·법적문제 ⑤ 기술이전과 확산 ⑥ 과학기술 지표작성,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效率性 提高를 위한 핵심적 기능

이러한 세계적인 동향에 발맞추어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의 설립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과학기술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효율성제고를 위해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으며 기대와 이목이 집중된다고 하겠다.